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예일대 오희 교수 미국수학회가 주는 '새터상' 수상	연합뉴스	2014.11.2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고등과학원 스칼라(Scholar)인 오희 미국 예일대 교수가 2015년 새터상(Satter Priz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고등과학원이 21일 밝혔다.

새터상은 미국수학회가 지난 6년간 가장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낸 여성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2013년 수상자는 지난 8월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카자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였다.

오 교수는 ▲ 동질공간의 역학 ▲ 리군의 이산부분군 ▲ 정수론 응용 등의 분야에서의 출중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미국수학회는 "오 교수가 알렉스 콘토로비치 러트거스대 교수 등과 진행한 공동연구를 통해 동질공간의 역학, 3차원 다양체의 기하학·위상수학, 소수분포 등과 같이 다양한 정수론적 현상들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 오 교수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과대·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작년 7월에는 예일대 설립 이후 312년간 유지된 '금녀의 벽'을 뚫고 수학과 종신직(테뉴어) 교수로 임용돼 큰 화제를 낳았다.

2010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는 한국 여성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초청강연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교수는 2008년 고등과학원 스칼라 교수로 선정돼 매년 2~3개월가량 한국을 찾아 공동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새터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미국 텍사스주 산안토니오 헨리 곤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성훈 기자 / [lucho@yna.co.kr](mailto:lucho@yna.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오희 고등과학원 교수, 韓 최초 미국수학회 '새터상' 수상	뉴스1	2014.11.21



오희 고등과학원 교수 및 예일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21일 미국수학회가 여성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새터상(Satter Prize)'을 수상했다. © News1

오희(46)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겸 예일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21일 미국수학회가 수여하는 '새터상(Satter Prize)'의 2015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수학회는 "그는 동질공간의 역학, 리군의 이순부분군, 정수론 응용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성과를 거뒀다"면서 "다양하고 교묘한 정수론적 현상들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고 오 교수의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오희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예일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학문제를 푸는 과정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스위치를 켜 뒤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는 과정이며 모든 수학문제는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수학의 매력을 언급하는 것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오희 교수의 새터상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헨리 곤잘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합동 수학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969년생인 오희 교수는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1997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프린스턴대학교와 프린스턴고등연구소 등 유명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6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정교수로 임명됐다. 이후 오 교수는 예일대학교 수학과 312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종신직 정교수로 임용됐다.

2008년부터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도 겸임하고 있는 오 교수는 매년 2~3개월씩 고등과학원을 방문해 연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0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는 한국 여성 첫 초청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미국수학회(American Mathematical Society)가 수여하는 '새터상'은 지난 6년간 가장 훌륭한 연구성과를 보인 여성 수학자에게 2년에 한번씩 수여하는 상이다. 미국의 여성 수학자 조안 벌만(Joan S. Birman)이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언니 루스 새터(Ruth Lytle Satter)의 헌신을 기리고 여성 과학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을 기탁해 1990년에 제정했다.

미국수학회 수상자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5000달러의 상금도 함께 주어진다. 2013년 수상자는 지난 8월 열린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 74년만에 여성 최초로 수학적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자카니(37) 스탠퍼드대 교수다.

주성호 기자 / [sho218@new1.kr](mailto:sho218@new1.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예일대 오히 교수 미국수학회가 주는 '새터상' 수상	KBS TV	2014.11.21

오히 미국 예일대 교수가 2015년 '새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새터상은 미국수학회가 지난 6년간 가장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낸 여성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오 교수는 동질 공간의 역학, 정수론 응용 등의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 오 교수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예일대 수학과에서 첫 여성 종신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낳았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립니다.

이은정 기자 / [ejlee@kbs.co.kr](mailto:ejlee@kbs.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고등과학원 오희 교수, 2015년도 미국수학회 새터 상 수상	뉴시스	2014.11.21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등과학원 스칼라 오희 교수가 지난 6년간 가장 훌륭한 연구 성과를 보인 여성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새터 상(Satter Prize)' 2015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교수는 최근 알렉스 콘토로비치 러트거스대 교수, 니미쉬 샤 오하이오주립대 교수, 이민 브리스톨대 교수, 아미르 모하마디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동질공간의 역학, 리군의 이산부분군, 정수론 응용 등의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오 교수는 예일대학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스위치를 켜더니 그 공간이 무척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수학문제를 푸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둘러보면 어둠 속에서 마주친 관문 하나하나가 그 스위치를 찾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수학문제는 마치 위대한 예술작품처럼 각각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69년 태어난 오희 교수는 1992년 서울대에서 학사학위를, 1997년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린스턴대학교, 프린스턴고등연구소 등을 거쳐 2006년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정교수가 됐다. 특히 브라운대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한 오 교수는 여성으로서 예일대 수학과 312년 역사상 최초로 종신직 정교수로 임용됐다.

여성 수학자 조안 별만(Joan S. Birman)은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언니 루스 새터(Ruth Lyttle Satter)의 연구 업적을 기리고 여성 과학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기금을 기탁, 1990년도 새터 상을 만들었다. 미국수학회는 선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년에 한 번 수상자를 선정해 5000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2015년도 새터 상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텍사스 주 산안토니오 헨리 곤잘레스 컨벤션센터에서 '2015 합동 수학회(2015 Joint Mathematics Meetings)'행사의 하나로 열린다.

백영미 기자 / [ositive100@newsis.com](mailto:ositive100@newsis.com)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오희 예일대 교수 '새터상' 수상	서울경제	2014.11.22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고등과학원 스칼라(교수)인 오희(사진) 미국 예일대 교수가 2015년 새터상(Satter Priz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고등과학원이 21일 밝혔다.

새터상은 미국수학회가 지난 6년간 가장 훌륭한 연구성과를 낸 여성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지난 2013년 수상자는 올해 8월 열린 서울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였다.

오 교수는 동질공간의 역학, 정수론 응용 등의 분야에서의 출중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미국수학회는 "오 교수가 알렉스 콘토로비치 러트거스대 교수 등과 진행한 공동 연구를 통해 동질공간의 역학, 3차원 다양체의 기하학·위상수학, 소수분포 등과 같이 다양한 정수론적 현상들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 오 교수는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공과대·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7월에는 예일대 설립 이후 312년간 유지된 '금녀의 벽'을 뚫고 수학과 종신직(테뉴어) 교수로 임용돼 큰 화제를 낳았다. 2010년 인도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는 한국 여성 수학자로는 처음으로 초청강연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교수는 2008년 고등과학원 스칼라 교수로 선정돼 매년 2~3개월가량 한국을 찾아 공동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새터상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헨리곤살레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현욱 기자 / [hwpark@sed.co.kr](mailto:hwpark@sed.co.kr)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예일대 오희 교수, 美수학회 '새터상'	조선일보	2014.11.22



미국 예일대 수학과 오희(45) 교수가 미국수학회(AMS)가 탁월한 여성 수학자에게 주는 '2015년 새터상(Satter Prize)'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수론과 기하학 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1990년 제정된 새터상은 수학적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에 버금가는 상이다.

오 교수는 작년 7월 예일대 수학과 의 첫 여성 정교수로 부임해 화제가 됐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를 지냈다.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오희 예일대 종신직 교수 올해 미국 수학회 '새터상'	경향신문	2014.11.22

고등과학원은 오희 미국 예일대 교수(45·사진)가 올해 미국 수학회가 주는 새터상(Satter Prize)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수학회는 “오 교수가 알렉스 콘토로비치 러트거스대 교수 등과 진행한 공동연구를 통해 동질 공간의 역학, 3차원 다양체의 기하학·위상수학, 소수분포 등과 같이 다양한 정수론적 현상들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고 평가했다.

새터상은 미국 수학회가 훌륭한 연구성과를 낸 여성 수학자를 선정해 주는 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여성 수학자 상이다. 지난해 새터상 수상자는 올해 수학회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미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였다. 오 교수는 정수론, 동질 공간 내에서 역학 등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오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공대, 브라운대 등에서 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7월 예일대에서 설립 이후 312년간 유지된 ‘금녀의 벽’을 뚫고 수학과 종신직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됐다. 오 교수는 2008년 고등과학원 연구원 교수로 선정돼 매년 한국을 찾아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새터상 시상식은 내년 1월11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헨리 곤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목정민 기자 / [mok@kyunghyang.com](mailto:mok@kyunghyang.com)